

수박 주산지 신엄리 가뭄 심화... 타는 '농심'

7일 이후 나흘만에 가뭄지수 수직 상승 '극심단계' 목전 북부 와산, 남부 상예, 동부 고성·수산 등 초기 가뭄 전조

조기 종료(6월 26일)된 장마에 이어 때 이른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제주도 내 수박 주산지인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가뭄이 심화되며 농심(農心)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또한 제주 북부, 동부, 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도 초기 가뭄 현상을 보이거나 목전에 두고 있어 전역에 대한 여름 가뭄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제주지방기상청의 '제주 영농지원 기상정보'에 따르면 신엄리의 가뭄판단지수(kpa)는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399를 기록, 초기 가뭄을 넘어 극심 가뭄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뭄정보는 20cm 깊이의 토양에서 측정한 데이터로 kpa가 100 이상이면 초기 가뭄, 500이 넘으면 극심 가뭄으로 판단한다.

신엄리는 지난 7일 138로 초기 가뭄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8일 192, 9일 280에 이어 10일 현재 400대를 넘으며 수직상승했다. 이 기간의 최고 초상온도(지표에 접해 있는 풀 위의 온도)가 40℃를 넘나들며 용적수분(현재 토양 100cc중 수분의 용적)은 24%까지 내려앉아 대지가 바짝 마른 상태를 보여줬다. 지난 2일까지만해도 가뭄지수는 20대를 보였으나 불과 며칠만에 가뭄 현상은 심화됐고, 특히 절대

적으로 수분 공급이 필요한 수박 재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가뭄에 피약될까 걱정하면서 일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수시로 스프링클러로 물을 공급하고 신문지로 열매를 감싸지만 피해 예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가뭄지수는 북부(제주) 와산, 남부(서귀포) 상예, 동부(성산) 고성·행원·수산 등도 초기 가뭄이나 그 전단계를 보이며 비상이다.

이날 기준 제주시 전역에는 지난 달 24일 이후부터 보름가량 이렇다 할 강수량을 기록하지 못한 채 폭염특보와 열대야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 예보됐던 비소식도 다음주 18일쯤으로 변경됐다. 11~12일 한라산 동쪽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예상강수량 5~20mm)는 있으나 폭염과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10일 현재 동부와 산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당분간 낮 기온은 30~32℃, 최고체감온도는 33℃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고 밤사이 열대야도 예상된다. 지난 9일 기준 올해 열대야 일수는 북부(제주) 11일, 남부(서귀포) 11일, 고산(서부) 6일, 동부(성산) 4일 등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꽃망울 터뜨린 용설란 연일 무더운 날씨를 보인 10일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변에서 군락을 이룬 용설란이 꽃망울을 터뜨려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1일 금요일 음 6월 17일 (9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30%
20%	성산	60%
30%	고산	20%
3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24/31℃
모레	흐림 24/32℃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6℃, 낮 최고기온은 30~32℃로 예상된다. 낮부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강풍과 풍랑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5:33	달뜨기 20:26
해질 19:46	달지름 05:24
물때 만조 10:33	간조 05:40
23:47	17:10
자외선지수 보통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현행 유지

제주시, 8월까지 경유 ㄷ당 266.58원·LPG 170.4원 지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따라

제주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경유 ㄷ당 266.5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ㄷ당 170.4원을 지원하고,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ㄷ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로 지급된다.

기존 운송사업자는 포스(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하거나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신규 운송사업자는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외상 후 일괄 결제 ▷부풀려 결제 ▷타차량 주유 ▷수급자

격 상실 후 주유 등 부정수급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올해 4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와 7만4000원의 환수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3만3012건에 57억7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6339건에 39억8200만원을 지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그린워싱턴 ‘바이오중유’... 탄소중립 가로막아”

10일 ‘바이오연료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발표

화학연료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재생에너지 ‘바이오중유’가 생산·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탄소중립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아와 공익법센터 어필은 10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개선 과

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바이오중유는 야자수의 열매에서 짙 기름인 팜유, 대두유,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된 바이오연료 중 하나다. 국내에선 바이오연료가 폐식용유를 사용해 만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단체는 폐식용유만으로 바이오연료의 생산량을 충당할 수 없

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바이오중유가 팜유 등 원료 생산·수입에서부터 에너지 발전 등 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함에도 신재생에너지로 ‘그린 워싱’ 됐다고 두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화력 기반 바이오중유 발전소 단계적 폐쇄·전환 로드맵 수립 ▷팜유 등 토지이용변화 유발 고위험 원료 사용 제한·단계적 퇴출 ▷연료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량화 및 인정 제도 도입 등을 요

구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승 축 진



부이사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

부이사관(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재관

(주)제스코마트 대표이사 **강동화**

승 축 진

소방정



양윤석

(성주공 28세)

소방정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씨총회총본부 회장 양순명
양씨직공파총친회 회장 양승보
양씨천호공파총친회 회장 양광수
양씨중앙장공파총친회 회장 양창범
양씨청년회총본부 회장 양석익

달 축 성

상호금융 예수금 4,000억원



강성방

(대정농협 조합장)

상호금융 예수금 4,000억원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정농협 농촌사랑자원봉사단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